

# 일본 묘만지(妙滿寺) 소장 <미륵하생변상도>에서 발견된 <삼십칠존만다라>와 고려 불화의 복장(腹藏)\*

김연미\*\*, 손희진\*\*\*

- I. 머리말
- II.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의 만다라 발견 현황과 구성
- III. 동아시아 만다라 흐름에서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의 위치
- IV.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와 고려 불화와 불상의 복장
- V. 다른 문화권 불화에 나타나는 비교 사례들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일본 교토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彌勒下生變相圖)>는 화면 중앙에 미륵불의 하생 장면을 묘사한 고려후기 불화이며 충렬왕(忠烈王, 재위 1274~1308) 20년인 1294년에 조성되었다(fig. 1).<sup>1</sup> 이 불화는 2009년 오히라 요시토요(大原嘉豊)에 의해 처음 학계에 보고되었고,

\* 본고는 교토국립박물관의 송·원 불화 특별전과 연계되어 개최된 국제학술대회「日本に請來された“宋元仏画”をめぐって」에서 김연미가 발표한 내용을 확장한 논문이다. 만다라가 공개되기 전 2024년에 실물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이테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 교수님과 모리하시 나즈미(森橋なつみ) 교토국립박물관 학예부 연구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Fig. 1. <미륵하생변상도> *Descent of Maitreya*, 1294, Koryŏ, Color on Silk, 227.2×129cm, Myōman-ji Temple, Kyoto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ed.), *Sō Gen butsuga: Umi o koeta hotoketachi*, 2025, p. 152)

2021~2023년 보존·수리 과정에서 후면 배접지를 제거하는 중 비단 본지 이면에 직접 부착된 세 점의 목판본 <삼십칠존만다라(三十七尊曼荼羅)>가 확인되었다.<sup>2</sup> 만다라들은 수리를 마친 불화와 함께 2025년 9월 교토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 「송원 불화—푸른 바다를 건너온 부처들(宋元仏画—蒼海を越えたほとけたち)」에서 공개되었다.

이전까지 만다라가 고려 불화 내부에서 발견된 사례는 쇼보지(正法寺) 소장 <아미타여래도(阿彌陀如來圖)>가 유일하였다.<sup>3</sup> 따라서 이번에 새로 발견된 만다라는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심층 연구가 어려웠던 고려시대 불화 복장(腹藏)의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묘만지 소장 불화에서 발견된 만다라들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이 만다라들이 불화에 그려진 존격들에 신성성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장치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만다라들이 동아시아 만다라 전통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다 폭넓게 조망

하기 위해, 중국 및 일본의 만다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는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의 중심을 이루는 37존을 기반으로 다라니와 진

1 해당 불화의 도상과 내용, 관련 경전에 대한 분석은 류상수, 「고려 후기 변상도에 보이는 불교행례와 시각적 표상 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pp. 103-169; 강인선, 「일본 妙満寺(묘만지) 소장 1294년명 <彌勒下生變相圖> 연구」, 『불교미술사학』 19 (2015), pp. 103-118 참조.  
 2 불화의 보존·수리 작업과 만다라의 발견에 대해서는 森橋なつみ, 「重要文化財「彌勒下生變相図」(京都・妙満寺藏)の修理と版本曼荼羅の発見」, 京都国立博物館編, 『宋元仏画—蒼海を越えたほとけたち』(東京: 毎日新聞社・京都新聞, 2025), pp. 154-157 참조.  
 3 坂田黒珠堂, 『保存修理報告書 正法寺藏 重要文化財指定 絹本著色 如来像 一幅』(滋賀: 坂田黒珠堂, 1999); 박은경, 「高麗佛畵의 변죽」, 『美術史論壇』 34 (2012), pp. 49-51.

언을 복잡한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불화에 상징적 사리를 봉안하고 화면에 그려진 존격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묘만지본 만다라와 동일한 <삼십칠존만다라>는 동시기 고려 불상의 복장에도 사용되었다. 이는 불화와 불상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의 복장 의례가 독립적으로 운용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연속성을 지닌 신앙·의례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당 만다라가 고려시대 만다라의 전개 과정과 복장 의례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조명하는 한편, 고려 불화 복장의 특수성과 초지역적 연결성을 규명하기 위해 동시기 아시아 타 지역의 불교 전통에서 불화에 신성성을 부여한 방식들도 비교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의 만다라 발견 현황과 구성

### 1.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의 발견 현황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는 왕실 화원 문한대조(文翰待詔) 이성(李晟)이 그린 가로 129cm, 세로 227.2cm의 대형 비단 채색화이다.<sup>4</sup> 화면은 수직 축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좌우대칭 구도 위에 상·중·하 삼단 구조를 이루며,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에 설해진 용화수 아래 설법 장면을 가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개한다. 중앙에는 미륵불이 의좌(倚坐)한 모습으로 배치되고, 그 아래 두 협시보살이 중심 구도를 형성한다. 또한 존격의 크기를 통해 부처-보살-천-인간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를 분명히 드러낸다.<sup>5</sup>

불화의 수리 중 발견된 세 점의 만다라는 닥종이에 목판으로 인출되었으며, 직경 약 10cm의 원형 만다라이다(fig. 2). 종이의 절단면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목판을 한 장의 종이에 세 차례 인출한 뒤 이를 세 조각으로 절단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만다라가 부착된 위치는 미륵불의 오른발과 부처의 신광 바깥의 허공에 가까운 부분 등 불화의 내용상 특별한 의미를 가졌

4 '龍華會圖 施主比丘 慈船 同願比丘 希忍 書文翰待詔李晟 至元三十一年 甲午'라고 적힌 화기가 있어 제작자, 제작 연도 등을 알 수 있다. 화기와 불화의 조성 배경, 시주 및 발원자는 강인선, 앞의 논문, pp. 101-141; 류상수, 앞의 논문, pp. 109, 159-169; 김정희, 「高麗佛畫의 發願者와 施主者」, 『강좌미술사』 38 (2008), p. 278 참조.

5 강인선, 위의 논문, pp. 101-141.

6 森橋なつみ, 앞의 논문, pp. 154-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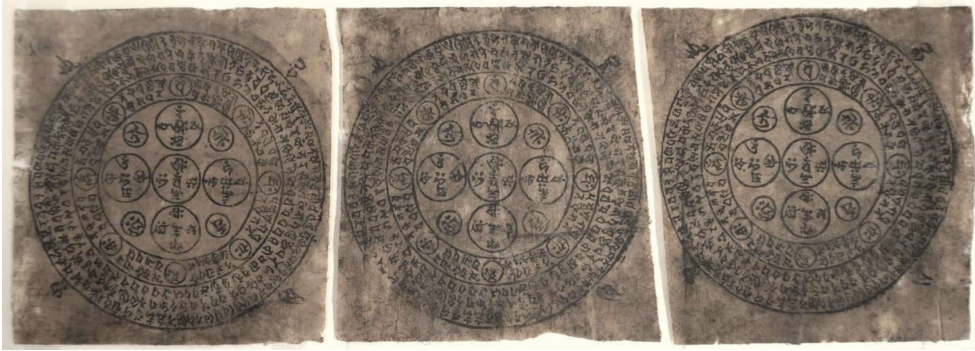


Fig. 2. <삼십칠존만다라> *Maṇḍala of Thirty-seven Deities* from the verso of the *Descent of Maitreya*, 1294, Koryŏ,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diameter 10cm, Myōman-ji Temple, Kyoto (Photograph by Youn-mi Kim)



Fig. 3. <삼십칠존만다라> 발견 위치 *The location of the Maṇḍalas of Thirty-seven Deities affixed to the verso of the Painting*, 1294, Koryŏ,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Diameter 10cm, Myōman-ji Temple, Kyoto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ed.), *Sō Gen butsuga: Umi o koeta hotoketachi*, p. 152)

다고 보기 어려운 곳들이다(fig 3).

이 <미륵하생변상도>는 예도시대 말기에 장황 교체 수리가 이루어진 바 있어, 이번에 확인된 만다라의 위치가 조성 당시의 원위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금번 보존·수리 작업 중 가에이



Fig. 4. <아미타여래도> *Amitābha Buddha*, early 14th century, Koryŏ, Ink and Colors on Silk, 184×86.5cm, Shōbō-ji Temple, Kyoto (Pak Un-kyung, *Koryŏ purhwa ūi pyŏnjuk*, plate 12, 12-1)

(嘉永) 3년(1850) 음력 12월에 불화를 다시 장황하면서 남긴 명문이 목축(木軸)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sup>7</sup> 또한 앞서 언급한 1999년에 발견된 쇼보지 소장 <아미타여래도>의 만다라는 여래의 흉부에 그려진 만(卍)자 부근에 부착되어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fig. 4-1, 4-2). 박은경은 이 만다라를 불화의 복장물로 파악했으며, 그 위치는 불화에 그려진 아미타여래의 심장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했다.<sup>8</sup>

7 위의 논문, pp. 154-155. 변상도 축에 쓰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嘉永三庚戌歲臘月二十一日, 表具師蘭阜亭安治良, 裝之者也。”

8 박은경, 앞의 논문, pp. 49-51; 만다라가 발견된 현황에 대해서는 坂田墨珠堂, 앞의 책, 참조.

만다라가 불화에 그려진 존격에 생명력과 신성성을 불어넣기 위한 일종의 복장물로 기능했다면, 부처의 심장이 있는 흉부에 위치시키는 것이 매우 적합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심(心)’은 심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불교 수행과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마음’을 뜻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미륵불과 협시보살의 삼존이 그려진 묘만지 불화의 경우, 배접지에서 발견된 만다라의 개수도 세 점이기 때문에, 세 만다라가 원래 각각의 존격의 흉부 부근에 부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2.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의 구성과 복장물로서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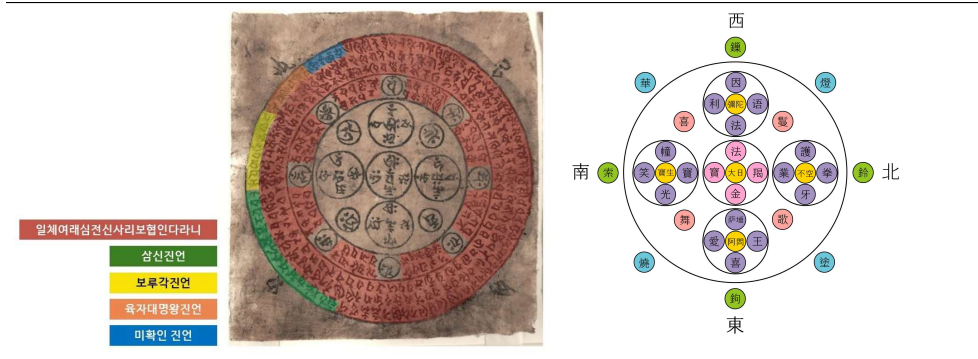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는 만다라와 진언·다라니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sup>9</sup> 전체 구성은 세 겹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지며, 중앙 원에는 금강계만다라의 성신회(成身會)에 등장하는 ‘삼십칠존(三十七尊)’이 재현적 형상 대신 상징적 종자(種子/種子)<sup>10</sup>로 표현되었다. 중앙의 다섯 오해탈륜(五解脫輪)에는 25존의 종자가 배치되고, 그 사이에 사내공양보살(四內供養菩薩)의 종자가 안치되었다. 이를 둘러싼 두 번째 원에는 범자로 적힌 두 줄의 다라니가 있으며, 그 사이에 사외공양보살(四外供養菩薩)과 사섭보살(四攝菩薩)의 종자를 담은 여덟 개의 작은 원이 삽입되었다(fig. 5-1, 5-2).<sup>11</sup> 이 이중 동심원 안에 표현된 종자가 총 37존(尊)을 이룬다. 가장 바깥의 세 번째 원에는 세 줄의 다라니가 배치되었고, 그 외곽에는 동방 지국천왕(靑), 북방 다문천왕(靑), 남방 증장천왕(靑), 서방 광목천왕(靑)을 상징하는 사천왕(四天王)의 종자가 추가로 배치되었다.

다음 장에서 분석하겠듯이, 만다라에 진언·다라니가 원권(圓圈)으로 합쳐진 예는 한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복장물 중에서 주로 발견된다. 묘만지본 만다라의 다라니들은 <일

9 불교 전통에서 다라니(陀羅尼)와 진언(眞言)이라는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다. 다라니와 진언에 대해서는 Paul Copp, *The Body Incantatory: Spells and the Ritual Imagination in Medieval Chinese Buddh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육자대명다라니>, <육자대명왕진언>, <육자진언> 등의 명칭이 혼용되기도 했으며, 조선시대 간행된 『오대진언(五大眞言)』, 『제진언집(諸眞言集)』, 『진언집(眞言集)』 등에도 진언과 다라니가 특별한 구분 없이 수록되어 있다.

10 밀교의 종자에 대해서는 吉祥 編著, 『佛敎大辭典』 (홍법원, 2001), pp. 2356-2357 참조.

11 <일체여래십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의 마지막 부분인 ‘흠흠사바하’를 마지막으로 <삼신진언>, <보루각진언>, <육자대명왕진언>, 그리고 미확인 진언 4종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도안 제작에 도움을 준 도레이, 박신영, 김혜원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 五佛 중앙 大日如來(毗盧遮那佛)
- 1. 동쪽 阿閼佛
- 2. 서쪽 阿彌陀佛
- 3. 남쪽 寶生佛
- 4. 북쪽 不空成就佛
- 四波羅蜜菩薩: 金剛波羅蜜菩薩·寶波羅蜜菩薩·法波羅蜜菩薩·羯磨波羅蜜菩薩
- 十六大菩薩
- 1. 金剛薩陀菩薩·金剛王菩薩·金剛愛菩薩·金剛喜菩薩
- 2. 金剛法菩薩·金剛利菩薩·金剛因菩薩·金剛語菩薩
- 3. 金剛寶菩薩·金剛光菩薩·金剛幢菩薩·金剛笑菩薩
- 4. 金剛業菩薩·金剛護菩薩·金剛牙菩薩·金剛拳菩薩
- 內供養菩薩: 金剛嬉菩薩·金剛鬘菩薩·金剛歌菩薩·金剛舞菩薩
- 外供養菩薩: 金剛香菩薩·金剛華菩薩·金剛燈菩薩·金剛塗菩薩
- 四攝菩薩: 金剛鈎菩薩·金剛索菩薩·金剛鎖菩薩·金剛鈴菩薩

Fig. 5.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의 구성. *Analysis of the Maṇḍala of Thirty-seven Deities Found on the reverse of the Descent of Maitreya at Myōman-ji Temple, 1294, Koryŏ,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diameter 10.6cm, Myōman-ji Temple, Kyoto* (Photograph by Youn-mi Kim; edited by Hee-jin Son)

체여래심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이하 보협인다라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밖에 <보루각진언(寶樓閣眞言)>,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삼신진언(三身眞言)> 등이 시계방향으로 둘러졌다.<sup>12</sup>

묘만지본 만다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협인다라니>는 상징적인 사리를 불화에 봉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나라 불공(不空, 705~774)이 한역한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에서 석가모니불은 금강수보살에게 이 다라니를 설해 주며, “이것은 일체 여래의 미래와 현재이며, 이미

12 묘만지본 만다라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출토 <삼십칠존만다라>의 다라니 분석은 문상현,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복장 다라니 연구-운양민속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복장 유품>과 관련하여」, 『불교미술사학』 39 (2025), pp. 19-20.

열반에 드신 여래의 전신사리가 모두 <보협인다라니> 안에 있으며, 이 모든 여래들의 모든 삼신(三身)도 이 안에 있다”라고 설한다.<sup>13</sup> 즉, 이 다라니는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의 온전한 몸이 내재한 사리와 같으며, 그 부처들의 삼신(法身·報身·化身)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이로 인해 고려시대 <보협인다라니>는 부처의 전신사리와 동등한 위력과 공능을 지닌 법사리(法舍利)로 인식되어 탑이나 불상 내에 봉안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sup>15</sup>

고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협인다라니>를 단순한 독송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종자·진언·불보살 상징을 포함한 도상적 구성으로 발전시켜 ‘문자 만다라(textual mandala)’의 한 요소로 결합하였다.<sup>16</sup> 묘만지본 만다라에서는 <보협인다라니>가 중심의 금강계 37존을 둘러싸도록 배치되어, 다라니와 전통적 만다라가 하나의 시각적·의례적 체계로 통합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려와 조선 불상에서 사리는 핵심 복장 물목이었다는 점이다.<sup>17</sup> 부처의 육신에서 기원한 사리가 불상에 부처의 현존(現存, presence)을 부여한다고 믿어졌던 것이다. 또한, 본고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겠듯이 일본 불화 가운데 장황의 축 내부에 사리를 납입한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 역시 <보협인다라니>를 통해 부처의 사리를 상징적으로 봉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8</sup>

<보협인다라니>가 일체 여래의 삼신이 들어있다고 믿어진 다라니임을 고려할 때,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에 <삼신진언>이 포함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삼신진언>은 시계방향으로 둘러친 <보협인다라니>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이어 배치되어 연속된 구조를 지닌다.

13 『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T. 19, no. 1022A: 833c-834b. “此是一切如來未來現在及已般涅槃者全身舍利皆在寶篋印羅尼中是諸如來所有三身亦在是中.”

14 삼신 사상의 발전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Gadjin Nagao, “On the Theory of Buddha-Body (Buddha-kāya),” trans. Hirano Umeyo, *The Eastern Buddhist* 6, no. 1 (1973): 25-53; Guang Xing, *The Concept of the Buddha: Its Evolution from Early Buddhism to the Trikāya Theory* (London: RoutledgeCurzon, 2005).

15 이승혜, 「10-11세기 중국(中國)과 한국(韓國)의 불탑(佛塔) 내 봉안 『보협인경(寶篋印經)』 재고, 『梨花史學研究』 62 (2021), pp. 4-34; 주경미, 「8-11세기 동아시아 탑내 다라니 봉안의 변천,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2011), pp. 265-282.

16 Seunghye Lee, “Text, Materiality, and Enshrinement Practices: Visual Culture of a Buddhist Dhāraṇī in Late Medieval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27, no. 2 (2022): pp. 137-155. 종자로만 구성된 법만다라와 달리 다라니 등으로 구성된 “문자만다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Youn-mi Kim, “From Esoteric to Pure Land and Huayan Buddhism: Uṣṇīṣavijayā Dhāraṇī Mandala in Liao Buddhism,” *Misulsahak yōn'gu* (미술사학연구) 307 (2020), pp. 170-180.

17 한국 불상의 복장물로 사용된 사리에 대해서는 강희정, 「17세기 이후 불상의 복장(腹藏) 의례: 법계(法界)의 구현, 『미술사와 시각문화』 18 (2016), pp. 40-54; 이승혜, 「불교 조상사적(造像史的) 맥락에서 본 복장(腹藏), 『남도 문화연구』 38 (2019), pp. 7-32. 인도와 중국의 사례는 奥健夫, 「生身佛像論, 長岡龍作 編, 『造形の場(講座日本の美術 第4巻)』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5), pp. 309-310.

18 <보협인다라니>의 법사리 기능이 묘만지본 만다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후지오카 유타카(藤岡穰) 교수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불화 복장에서 삼신을 봉안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어서 등장하는 <보루각진언>과 <육자대명왕진언>은 현세기복과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다. <보루각진언>은 『廣大寶樓閣善住祕密陀羅尼經』 제3 품에서 설해지며, “옴 마니 다리 흙 바다(唵摩爾達哩吽鑿吒)”이라고 발음된다. 해당 경전은 이 진언을 일정한 횟수로 염송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재난이나 질병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모든 죄장(罪障)이 소멸되고 모든 지옥의 업에서 벗어나 축생의 몸을 면하게 된다고 설한다.<sup>19</sup> 이러한 <보루각진언>은 고려시대 묘지명과 불복장에서 <육자대명왕진언>과 병기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육자대명왕진언>은 본래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다라니인데, 고려시대의 묘장과 장의 문화에서는 <보루각진언>, <파지옥진언(波地獄眞言)>, <결정왕생정토주(決定往生淨土呪)> 등과 함께 사용되며 업장소멸과 정토왕생이라는 망자 천도의 효험을 지닌 진언으로도 인식되었다.<sup>20</sup> 묘만지본 만다라에 이러한 진언들이 포함된 것은 불화를 봉안한 후원자들이 불화를 조성한 공덕을 통해 현세의 복덕 증장과 내세의 왕생을 기원하고자 했던 염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한편, <삼십칠존만다라>의 중앙에는 금강계만다라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의 종자인 ‘**꺾**(vam)’이 인출되었는데, 비로자나는 일체 제불이 현현하는 근본 법신(法身)을 의미한다. 이 중심 종자를 둘러싼 만다라의 종자들은 비로자나불의 몸에서 현현한 다양한 존격들을 상징한다. 이러한 만다라를 배면에 부착함으로써 불화에 그려진 불보살들도 근본 법신에서 발현한 존격으로 승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최근 일본 학계에서는 과거 불교 문화권에서 불상을 살아있는 신체, 즉 ‘생신(生身)’으로 전환한 방식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식이 불상 내부에 사리나 장기 모형 등을 봉안했던 것이었다.<sup>21</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불화의 내부에 법신과 법사리 등을 담고 있는 만다라를 안치하는 복장의례 또한 화면에 재현된 이미지를 생명력을 지닌 불보살의 현현(顯現)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19 『廣大寶樓閣善住祕密陀羅尼經』, T. 19, no. 1006: 641a-b, 묘만지본 만다라에 함께 나타나는 <보협인다라니>와 <보루각진언>은 (집)금강수보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연결점이 있다. 경전에 따르면, 전자는 부처가 금강수보살에게 설해준 다라니이고, 후자는 염송 시 금강수보살이 부처와 함께 나타난다고 한다.

20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승혜, 「농소고분(農所古墳) 다라니관(陀羅尼棺)과 고려시대 파지옥(破地獄) 신앙」, 『한국학』 42 (2019).

21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奥健夫, 앞의 논문, pp. 293-322; 長岡龍作, 『仏教と造形—信仰から考える美術史』(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21), pp. 107-134.

### Ⅲ. 동아시아 만다라 흐름에서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의 위치

본 장에서는 묘만지본 만다라가 동아시아 만다라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같은 계통 작품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묘만지본 만다라를 일본 금강계만다라와 비교하는 것은 고려 <삼십칠존만다라>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일본 금강계만다라는 방위에 따른 불보살들의 배치와 원륜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삼십칠존만다라>와 흡사하다. 특히 이러한 금강계만다라가 각 존격을 종자로 표현하는 법만다라(法曼荼羅)로 만들어진 경우, 그 중앙부의 성신회가 묘만지본 만다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sup>23</sup>

일본에서 금강계만다라는 태장만다라(胎藏曼荼羅)<sup>24</sup>와 짝을 이루는 양계만다라(兩界曼荼羅)를 형성하며 늦은 시기까지 금강계와 태장계의 이중 구조를 유지하였다.<sup>25</sup> 특히 도지(東寺)에서는 금강계만다라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으며,<sup>26</sup> 헤이안 말기에 이르르면 금강계만다라 전체가 아닌 성신회 81존만을 독립적으로 도상화한 예도 확인된다. 이는 일본에서 금강계만다라의 핵심 부분인 성신회가 독립적인 불화로 제작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일본에서는 금강계만다라 성신회가 81존 체계로 인식되어, 존격 구성

22 향후 규명되어야 할 점은 고려 불화 배접층에 삽입된 만다라의 구체적 봉안 방식이다. 현재 복장 흔적이 확인된 두 점의 불화에서 만다라의 봉안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쇼보지 소장 <아미타여래도>는 가장 안쪽 배접지 위에 만다라가 앞면을 향하도록 부착되었다. 반면, 묘만지본은 배접지가 아니라 불화가 그려진 비단 천에 직접 밀착되도록 부착되었고, 가장 안쪽 배접지는 만다라 위치에 맞추어 절개되어 단차를 제거하였으며, 만다라는 뒤쪽을 향하도록 부착되었다. 쇼보지 불화는 덴쇼(天正) 11년(1583)에 배접층을 포함한 수리를 거쳤고, 묘만지 불화 역시 에도시대 장황 교체가 있었으므로, 어느 방식이 고려시대 본래의 봉안 방식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23 묘만지 만다라는 각 존격을 종자와 같은 문자로 표상한 법만다라(法曼荼羅)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 태장은 금강계와 달리 태장계라 명명하지 않는다. 이선용, 「韓國 佛教胎藏의 構成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 38. 엔닌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져온 만다라 목록에서도 “태장대만다라(胎藏大曼荼羅)” 등의 명칭만 보일 뿐 “태장계”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엔닌의 청래목록은 아래 각주 27번을 참조.

25 일본의 양계만다라는 19세기까지 꾸준히 제작되며,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336~1573)에 들어서면 대량생산을 의도한 양계만다라가 다수 만들어진다.

26 헤이안 시대 진언종(眞言宗)을 창시한 구카이(空海, 774-835)는 당에서 밀교를 전수받고 귀국하여, 도지를 국가적 밀교 도량으로 제편하였다. 도지 외에 양계만다라가 복장물로 납입되거나 의례에 사용된 끈고부지(金剛峯寺), 조코지(常興寺) 등의 사찰들도 진언종의 성격을 띤다.

역시 이 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는 성신회의 81존 중 37존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존격의 차이를 좀 더 면밀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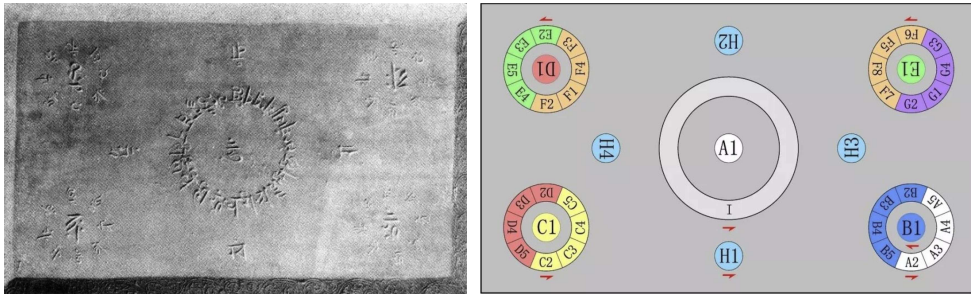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당(唐)에서 활동한 천태종 승려 엔닌(圓仁, 794-864)의 기록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그의 기록을 통해 일본 만다라의 원류가 된 당나라 금강계만다라는 여러 종류가 있었고, 그중 37존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엔닌은 약 9년간 당에 체류하며 장안·양주(揚州)·우타이산(五臺山) 등지에서 밀교 의례 및 도상류를 다수 수집하고, 귀국 직전 세 편의 구법 목록 『일본국승화오년입당구법목록(日本國承和五年入唐求法目錄)』, 『자각대사재당송진록(慈覺大師在唐送進錄)』, 『입당신구성교목록(入唐新求聖教目錄)』을 정리하였다. 이들 목록에는 엔닌이 일본에 가져온 불전(佛典)과 성물(聖物)이 계통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세 목록 모두에 “금강계삼십칠존종자만다라(金剛界三十七尊種子曼荼羅)”가 기재되었다.<sup>27</sup> 이는 엔닌이 당에서 금강계 삼십칠존만다라의 실물을 실견하고 입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사료이다.

이 만다라는 37존으로 이루어졌으면 더군다나 종자로 표현된 금강계만다라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엔닌이 일본에 가져온 해당 만다라는 현존하지 않지만, 이 기록을 통해 당나라 때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와 상당히 유사한 금강계만다라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듯이, 한국의 고려시대 불상 내부에서 출토된 <삼십칠존만다라>가 모두 종자만다라들이라는 점에서, 9세기 중국의 만다라 전통과 고려시대 만다라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기록을 통해 중국에서는 금강계만다라 제작 전통이 이미 당나라 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중국 금강계만다라의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안 법문사탑(法門寺塔)에서 출토된 9세기 작 <45존 사리함>에 표현된 존상들이 금강계만다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sup>28</sup> 하지만 이 사리기에는 37존 외에도 일본 금강계만다라에 포함되지 않는 팔대

27 『慈覺大師在唐送進錄』, T. 55, no. 2166: 1077c; 『入唐新求聖教目錄』, T. 55, no. 2167: 1087a; 『日本國承和五年入唐求法目錄』, T. 55, no. 2165: 1076a. 이 밖에도 이들 청래목록 중에는 “金剛界八十一尊種子曼荼羅”, “金剛界大曼荼羅”, “金剛界九界曼荼羅”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중국 당나라에는 적어도 네 종류의 금강계만다라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8 법문사 출토 <45존 사리함>의 존격들은 그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라이이만은 『도상초(圖象抄)』의 금강계 성신회의 존격 배치틀 근거로, 사리함의 존상 구성이 오불·사바라말·심육대보살·팔대공양·사존(四尊) 금강으로 이루어진 성신회 37존 체계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리함의 존상이 총 45존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교리적으로 성신회



□ A1-A5 毗盧佛系列 ■ B1-B5 阿閼佛系列 ■ C1-C5 寶生佛系列 ■ D1-D5 無量壽佛系列 ■ E1-E5 不空成就佛系列  
 ■ F1-8 팔공양보살(八供養菩薩) ■ G1-4 사십보살(四攝菩薩) H1-4 사대천신(四大天神)  
 ■ I 지거여래심파지옥진언(智炬如來心破地獄眞言)

Fig. 6. <서상대 묘실 출토 석함 함개> Stone Casket Lid, Found in the Tomb at the Xishangtai, Chaoyang City, Liaoning Province, China, Mid-10th to Early 12th Century, Liao dynasty, 104×65cm, Choyang-si (Chen Jie and Zhang Xin, *Xuanhua Liaomu yu Geyuansi: Mijiao yigui yingxiang xia de fuhao tixi he shensheng kongjian*, plate 4,

명왕(八大明王)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묘만지본 만다라에도 37존 외에 사천왕 종자가 표현되어 있어, 범문사 만다라와 유사하게 수호와 교화의 역할을 맡은 존격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29</sup> 그러나 범문사탑 사리기는 2차원에 그려진 만다라도, 종자만다라도 아니라는 점 등에서 묘만지본 만다라와는 차이를 보인다.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요(遼, 907-1125) 말기 묘장 미술품에서는 37존 종자가 발견되어 주목을 요한다. 1992년 요녕성 조양시(朝阳市) 서상대묘(西上台室)에서 발견된 석함(石函)의 덮개에는 금강계 오방불을 비롯해 16대보살, 사십보살, 팔공양보살, 사대천신<sup>30</sup> 등의 37존 종자가 정연하게 음각되어 있다(fig. 6-1, 6-2).<sup>31</sup>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묘실 내벽은 14개의 범문 다라니가 새겨진 석판으로 둘러싸여 있었으

37존으로 환원하여 해석하였다. 賴依纒, 「法門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會造像寶函考釋」, 『文物』 第8期 (1992), pp. 50-51; 賴依纒·조아담, 「경전들과 존상들 - 9세기 중국 범문사에서 발굴된 금강계만다라」, 『회당학보』 17 (2012), p. 263. 이에 반해 한언평은 해당 도상을 금강계 성신회의 45존상으로 파악하여, 37존 체계로 보지 않았다. 韓恩平, 『皇帝佛國—法門寺』 (西安: 陝西旅遊出版社, 2016), pp. 150-151. 박은선은 팔대명왕·보살·여래로 구성된 45존 체계를 분석하며, 『법화경』과 연관된 비로자나불 중심의 신앙 구조를 강조하였다. 박은신, 「法門寺 石室 출토 捧眞身菩薩像 연구—晚唐期 만다라의 중국적 전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한웨이는 오불·사바라밀·십육대보살·팔공양보살·사존금강의 존격 구성이 곧 금강계만다라 성신회의 37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韓伟, 「法門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會造像寶函考釋」, 『文物』 第8期 (1992), pp. 50-51.

29 일본 금강계만다라 성신회에서는 사천왕 가운데 비사문천만이 표현되어 있다.

30 사대천신은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와 종자 및 배치가 상이하여 사천왕과 동일한 존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31 陈捷, 张昕, 「宣化辽墓与闍院寺: 密教仪轨影响下的符号体系和神圣空间」, 『美術研究』 6 (2018), pp. 27-28.

며, 위상이 높았던 명승(名僧)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2</sup> 덮개 중앙의 비로자나여래 종자(fig 6-A1)를 중심으로 아촉여래(B1), 보생여래(C1), 무량수여래(D1), 불공성취여래(E1)로 구성된 사방불의 종자가 네 모서리에 새겨졌고, 16대보살, 팔공양보살과 사십보살의 종자들이 그 주변에 원권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다.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와 비교했을 때, 서상대묘 석함 만다라는 종자를 사용했다는 점 외에도 진언, 즉 다라니가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중앙 비로자나여래 종자 주위로는 <지거여래심파지옥진언(智炬如來心波地獄眞言)>이 범자로 새겨졌고, 석함은 네 벽면에도 다라니가 빼곡히 새겨져 있어 당시 불교적 사후관에 따른 장례 의식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면, <지거여래심파지옥진언>과 결합된 37존 종자만다라는 망자를 기리고 극락왕생을 비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상대 석함 덮개의 37존 구도와 배치는 묘만지본 만다라와 형태는 매우 다르지만, 37존을 종자로 표현하고, 다라니를 혼합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념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는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유통되었던 금강계 37존 체계를 따르면서도, 존격 배치와 공간 구획에서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37존을 범문 종자로 표현한 금강계만다라가 확인되나, 묘만지본과 동일한 도형 구성과 배치 방식을 지닌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대체로 방형의 외곽 구획 안에 원형을 배치하는 구성이 일반적이며, 성신회 역시 81존 체계로 이해되어 왔고 다라니와 결합된 예도 발견되지 않았다.<sup>34</sup> 반면 중국의 사례에서는 37존이 확인되더라도 세부 존격의 배열과 구도 면에서는 묘만지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만다라의 존격과 다라니가 결합되는 양상은 고려 <삼십칠존만다라>와 개념적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는 중국과 일본의 금강계만다라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면서도, 고려 후기 만다라가 복장물로 기능하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 형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韩国祥, 「朝阳西上台辽墓」, 『文物』 第7期 (2000), pp. 50-53.

33 엄기표, 「고분 출토 범자 진언 다라니의 현황과 의의」, 『순창 윤림리 농소고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pp. 154-156.

34 일본 끈고부지 오쿠노인에서는 하단부에 10종의 진언이 기재된 구회도(九會圖)의 <금강계종자만다라>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묘만지본처럼 37존 도상과 다라니가 결합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 IV.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와 고려 불화와 불상의 복장

이번에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에서 새로 발견된 만다라 덕분에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던 고려 불화의 복장을 조금이나마 더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가 고려에서 사용했던 만다라들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파악하고, 해당 만다라와 고려시대 불상 복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된 채색불화로 제작된 고려시대 만다라는 현존하지 않으나, 최근 고려 불상의 복장물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목판으로 인출한 다양한 종류의 만다라들이 발견되었다. 최근에 축적된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는 현재까지 발견된 대략 14종 983점의 고려시대 <팔엽삼십칠존만다라(八葉三十七尊曼荼羅)>에서 갈라져 나온 만다라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35</sup> 묘만지본 만다라는 <팔엽삼십칠존만다라>에서 여덟 개 연꽃잎을 나타낸 팔엽(八葉)이 생략된 형태로, 이러한 종류는 현재까지 약 2종 5점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팔엽은 태장만다라의 중앙부에 그려지는 핵심 요소로, 고려의 <팔엽삼십칠존만다라>의 경우 팔엽 내부에는 외공양보살과 사섭보살의 종자가 배치되고, 팔엽 사이에는 연꽃의 꽃술과 수염이 묘사된다(fig. 7-1, 7-2). 이러한 고려 <팔엽삼십칠존만다라>들은 금강계만다라의 37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강계의 성격을 가지지만, 태장만다라의 핵심 요소인 팔엽이 더해진 특징을 가진다. 즉, 금강계와 태장계 ‘양부(兩部)’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만다라인 것이다.<sup>36</sup>

초기 <팔엽삼십칠존만다라>의 형태는 만다라 도형이 다라니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고려 전기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에서 수습된 <팔엽삼십칠존만다라>(1239년

35 고려시대 <팔엽삼십칠존만다라>에 대한 종합적 정리는 손희진, 「고려시대 불복장 팔엽삼십칠존만다라(八葉三十七尊曼荼羅)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pp. 6-113. 손희진의 논문은 팔엽이 없는 <삼십칠존만다라>도 함께 다루었다. 해당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25년에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1295) 복장물에서 추가로 발견된 두 점의 <팔엽삼십칠존만다라>는 임영애, 「1295년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보협진언-팔엽삼십칠존만다라> 2종」,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연구결과보고회 학술자료집』(2025), pp. 70-97. 2025년 공개된 서산 개심사 <금동아미타여래상>의 <팔엽삼십칠존만다라> 분석은 정은우, 「다라니 분석과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시기」,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국보 승격 추진 학술대회자료집』(2025), pp. 33-53. 고려시대 다라니들을 총정리한 문상련의 최근 논문 여러 편에도 <팔엽삼십칠존만다라>가 분석된 바 있다. 그중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문상련,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원문(願文)과 다라니」, 『불교문화재연구』 5 (2024a), pp. 17-37; 문상련,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복장 다라니—복장 다라니에 보이는 고려시대 만다라와 諸種 진언」, 『동악미술사학』 36 (2024b), pp. 174-194 등이 있다.

36 이선용, 앞의 논문, pp. 263-264; 손희진, 앞의 논문, pp. 6-31.



Fig. 7. 장육소(丈六所) 간행 <팔엽삼십칠존만다라> *Maṇḍala of Eight-petaled Lotus and Thirty-seven Deities*, printed at the Changyukso, 1276, Koryŏ,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24.7×27.3cm, Kaesimsa Temple (Copyright permitted by Kaesimsa)

추정)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 중 가장 이른 예로, <팔엽삼십칠존만다라>에는 <보협인다라니>가 둘러지지 않았다. 대신 개별 목판에 새겨진 원권 형식의 <보협인다라니>가 같은 종이에 인출되어 있다. 즉, 하나의 종이에 상단에는 만다라가 3번 찍히고, 하단 두 단에는 원권 형식의 <보협인다라니>가 6번 찍혀 있다(fig. 8).<sup>37</sup> 이처럼 초기 <팔엽삼십칠존만다라>는 외곽부에 다라니가 없었으나, 1276년 장육소(丈六所) 간행본을 기점으로 만다라와 다라니가 결합된 형태가 나타난다. 장육소는 왕실 사업을 담당했던 경상수보도감(經像修補都監) 산하에서 불상 조성과 관련된 특정 업무를 맡았던 기구로 추정되며, 1280년을 전후하여 이를 폐지하고 승재색(僧齋色)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8</sup>

고려시대 제작된 <팔엽삼십칠존만다라> 중 간기를 갖춘 기준작이 되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판본이 이 승재색에서 간행되었다.<sup>39</sup> 승재색은 경전 판각 및 불교 서적의 간행, 사찰

37 나선형으로 서사된 <보협인다라니> 좌단의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간기로 보아 시주자는 최중준(崔宗峻, ?~1249)이며 판각은 기해년(1239)으로 추정된다. 함께 인출된 <팔엽삼십칠존만다라> 또한 동시기 개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8 장육소에서 <팔엽삼십칠존만다라>를 인출했다는 사실은 문상련, 앞의 논문(2024a), p. 12; 장육소와 경상수보도감의 관련성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임영애, 앞의 논문, pp. 78-94.

39 승재색 간행 <팔엽삼십칠존만다라>는 테두리 간기를 통해 발원자·개판 장소와 제작 연대(至元二十九年, 1292)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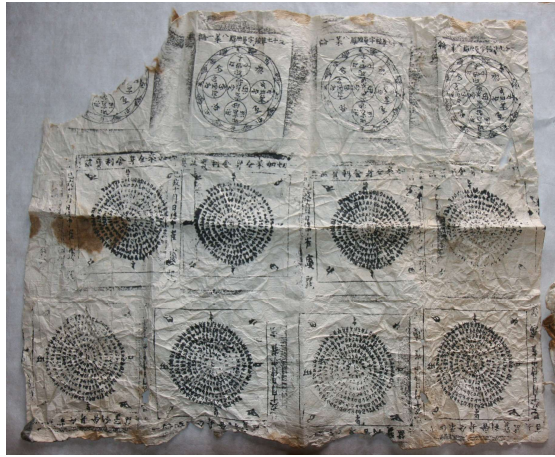


Fig. 8. <팔엽삼십칠존만다라·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 합부 Woodblock Print of the *Maṇḍala of Eight-petaled Lotus and Thirty-seven Deities and the Mantra of the Precious Casket Seal of the Complete-Body Relics of All Tathāgatas*, 1239, Koryŏ,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54.5×48.7cm, Found within the Cavity of the Bhaiṣajyaguru Buddha statue at Ch'ŏngnyangsa Temple (Photograph by Eom Gi-pyo)

에 대한 경제적 후원, 불상의 개금과 보수, 불교 의례 등을 담당하던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에,<sup>40</sup> <팔엽삼십칠존만다라>의 제작 배경과 사용 맥락을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승재색 간행본 <팔엽삼십칠존만다라>는 권문세족 가문의 후원으로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에 봉안된 불상의 복장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팔엽삼십칠존만다라>가 이러한 후원층을 매개로 확산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41</sup>

<팔엽삼십칠존만다라>는 고려 말까지 적어도 14종이 목판으로 간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유형이 계속해 제작되어 불상의 복장물로 납입되었다. 그러나 팔엽이 구현되지 않은 만다라는 묘만지 소장 불화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두 가지 종류만 발견되어, 매우 특수한 예에 속한다. 묘만지본 외에 다른 한 종류는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02)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복장물에 포함되어 있다.<sup>42</sup> 이 원형만다

40 최성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한국사학보』 30 (2008), pp. 126-127; 최근 새롭게 발견된 개심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물들을 통해 승재색의 성격과 기능을 추정한 연구는 최연식, 「한암(閑庵) 보환(普幻)의 행적과 서산 개심사 아미타여래좌상의 수보 배경」, 『동국사학』 80 (2024), pp. 28-33; 임영애, 앞의 논문, pp. 78-85.

41 손희진, 앞의 논문, pp. 46-57.

42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복장물 구성과 목록은 온양민속박물관 편, 『1302年 阿彌陀佛服藏物의 調査研究』 (온양민속

라는 내부에는 팔엽이 등장하지 않지만 대신 만다라 전체가 연꽃 위에 올려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를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불화 복장에 사용된 만다라가 불상의 복장물로 동일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적어도 고려후기에는 불상 복장물로 사용된 만다라와 다라니의 체계가 불화 제작에도 수용되면서, 불상과 불화의 복장이 어느 정도 공유된 신앙과 의례적 맥락 속에서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sup>43</sup>

묘만지본의 <삼십칠존만다라>와 동일한 만다라들이 불상의 복장물로 사용된 예는 앞서 언급한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점은 가로·세로 약 37.5cm의 한지 한 장에 묘만지본 만다라와 동일한 다섯 개의 원형 만다라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오회인(五回印)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 불상에 납입된 발원문의 뒷면에도 동일한 만다라가 일렬로 여덟 차례나 반복되어 찍혀 있다는 점이다. 해당 발원문은 승려 법영(法英)이 1301년 작성했으며, 여러 불보살에게 귀의할 것을 서원하고 속히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하고 있다. 또한 업장, 죄와 번뇌가 소멸되고 정도에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소원과 여러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이 반복하여 등장한다.<sup>44</sup> 이와 같은 발원문의 성격을 고려할 때, 뒷면에 <삼십칠존만다라>를 찍은 것은 만다라에 종자의 형태로 담겨 있는 여러 불보살들의 위신력과 다라니의 힘으로 이러한 서원과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5</sup>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만다라들은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가 불화의 제작 시점에 부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불상에서 출토된 법영의 발원문에 찍힌 <삼십칠존만다라>들은 발원문이 작성될 때 종이에 찍었을 것이므로, 1301년에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만다라의 목판은 1301년 또는 그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들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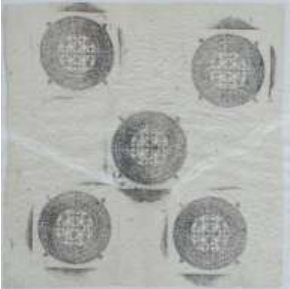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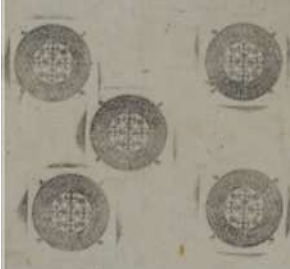

박물관, 1991), pp. 12-45. 이 중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과 동일한 다라니 및 만다라와 시주자 명단이 확인된다. 이경주, 「고려후기 전통양식 여래상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 24 각주 38번. 일부 복장물은 현재 대승사에 보존되어 있다. 해당 불상에서 출토된 복장물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손희진, 앞의 논문, pp. 52-55; 문상련, 앞의 논문, pp. 8-37.

43 원각사 소장 <삼십칠존만다라> 역시 묘만지본과 동일한 형식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미지를 제공해 주신 정각스님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품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신 엄기표 교수께 깊이 감사드린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내부 이미지는 정은우,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의 내력파 특징」, 『미술사연구』 29 (2015), p. 8, 도 1-2를 참고하였다.

44 발원문의 원문과 번역은 정은우, 신은제, 『고려의 성물, 불복장』(경인문화사, 2017), pp. 106-109, 294-297.

45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에는 묘만지본과 동일한 만다라 및 승제색 간행 <팔엽삼십칠존만다라> 등, 총 3종의 만다라가 복장물로 납입되었다.

Table 1. <고려 불상에서 발견된 묘만지본 만다라와 동일본 <삼십칠존만다라>>  
*Maṅḍalas of the Thirty-seven Deities Identical to the Myōman-ji Painting's Mandala, Found inside Koryŏ Buddhist Sculptures*

Provenance	Image	Dimensions (cm)	Detail View
Votive Inscription of Pŏpyŏng, Koryŏ, 1301, Onyang Folk Museum, Asan,		106,0×25,0	
Five-fold Imprint of the Thirty-seven-deity Maṅḍala, Koryŏ, 1301, Onyang Folk Museum, Asan		37,5×87,5	
Thirty-seven Deities Maṅḍala, enshrined inside a gilt-bronze seated Amitābha Buddha, Koryŏ, 1346, Changkoksa Temple, Chŏngyang		미상	
Thirty-seven-deity Maṅḍala, early 14th century, Wŏngaksa Temple, Koyang		38,0×87,9	

라는 묘만지본 만다라의 도형 구성과 종자 배치, 다라니 서사 방식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같은 목판에서 인출되었거나 후자와 동일한 만다라를 저본으로 한 복각본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1294년에 그려진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는 대승사 불상과 제작 시기가 불과 수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불화의 배접지에서 발견된 만다라들은 장황이 교체된 에도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제작 단계에서 복각으로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만다라가 불상의 복장물로 사용된 예가 한 건 더 확인된다.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금동약사여래좌상>(1346)에서는 내부에 만다라가 인출된 종이들이 발라져 있었는데, 복장 조사 당시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그 형태가 묘만지본 만다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와 같은 유형이 적어도 반세기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쇼보지 소장 <아미타여래도>에서 발견된 <팔엽삼십칠존만다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불상의 복장물로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시대 불상의 복장물 중에서는 쇼보지본과 동일한 만다라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관음·대세지보살상>(1333)<sup>46</sup>,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sup>47</sup>을 비롯해 합천 해인사 <금동지장보살상>과 <금동관음보살상>의 복장 유물의 오보병(五寶瓶)<sup>48</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 9, 10).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려 <팔엽삼십칠존만다라>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조선 17세기에 이르러 다시 불상과 불화의 복장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sup>49</sup> 조선시대 만다라들 역시 고려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만다라와 <보협인다라니> 및 각종 진언이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상과 기능 양면에서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불상에서는 상당한 수의 <팔엽삼십칠존만다라>가 발견되었으나, 불화의 복장에

46 이 보살상들의 복장유물은 다양한 종류의 만다라와 다라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복장유물에 관한 조사보고서는 國立中央博物館 編,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佛教彫刻 調查報告 II』(國立中央博物館, 2016).

47 쇼보지본 만다라와 유사한 만다라가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며(박은경, 앞의 논문, pp. 50-51), 본고에서는 두 가지가 동일본 만다라임을 확인하였다.

48 오보병은 후령통을 구성하는 중요 물품으로 금강계의 오불오지(五佛五智)와 상응한다. 해인사의 두 보살상에서 발견된 <팔엽삼십칠존만다라>는 특이하게도 오보병을 제작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손희진, 앞의 논문, p. 78. 이 보살상들의 발원문과 복장물에 대해서는 신은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 복장 발원문의 내용과 특징」, 『미술사연구』 48 (2025); 김추연, 「1351년명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 연구」, 『미술사연구』 48 (2025).

49 조선 전기 불상·불화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팔엽삼십칠존만다라>의 전승 양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17세기를 기점으로 복장물에서 다시 확인되며, 특히 불상에서 다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손희진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며 곧 등재지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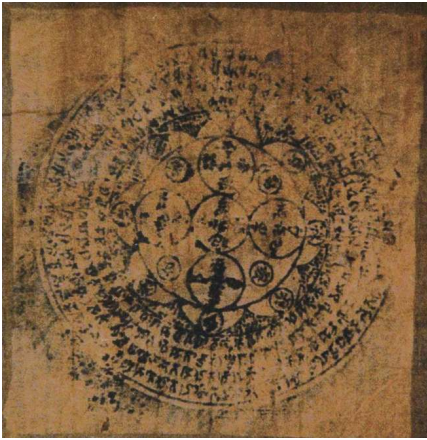


Fig. 9. <팔엽삼십칠존만다라> *Maṇḍala of Eight-petaled Lotus and Thirty-seven Deities*, Early 14th century, Koryŏ,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Diameter 10.6cm, Shōbō-ji Temple, Kyoto (Pak Un-kyung, *Koryŏ purhwa ūi pyŏnjuk*, plate 13)

Fig. 10. <팔엽삼십칠존만다라> *Maṇḍala of Eight-petaled Lotus and Thirty-seven Deities*, 1351, Koryŏ,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Utilized in making *Obobyŏng* (五寶瓶, Five Treasure Bottles), Found within the Gilt-bronze Seated Kṣitigarbha Bodhisattva, Haeinsa Temple (Copyright permitted by Haeinsa Temple)

사용된 예는 지금까지는 예산 대련사(大蓮寺) 소장 <비로자나불괘불도(毘盧遮那佛掛佛圖)>(1750)에서만 찾을 수 있다(fig. 11). 해당 사례에서 <팔엽삼십칠존만다라>는 독립된 종이에 목판으로 인출된 뒤, 괘불 배면에 부착되었다. 이 괘불의 뒷면에는 본존 비로자나불의 머리 부분에서 승각기 하단에 이르기까지 중앙 수직축을 따라 두 종류의 목판 인출본 13점이 부착되어 복장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착된 목판본들은 한 종류는 다라니 모음이고 다른 한 종류는 만다라이다. 그중 만다라는 7점이며,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을 살펴보면 고려후기의 만다라의 형식과 구조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팔엽삼십칠존만다라>임을 알 수 있다.<sup>50</sup> 다만 이 만다라의 좌측에는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가 하나의 목판에 함께 새겨져 있는 점이 고려시대 판본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목판으로 인출된 <삼십칠존만다라>는 불화와 불상이라는 매체의 구분을 넘어 조선

50 대련사 소장 괘불의 배면에 함께 부착된 다라니 목판본에는 오륜종자(五輪種子), 비밀실지(秘密悉地), 진심종자(真心種子), 입실지진언(入悉地眞言), 출실지진언(出悉地眞言), 준제구자(準提九字)와 같이 조선시대 불상 복장에 사용되었던 진언들을 포함하여 10종의 다라니와 진언이 새겨져 있다. (사)성보문화재연구원,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9: 대련사 괘불탱』(문화재청, 2016),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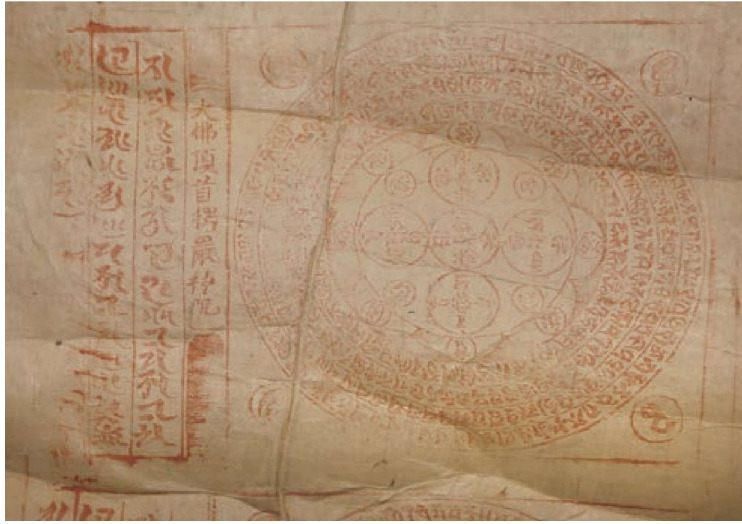


Fig. 11. <팔엽삼십칠존만다라> *Maṇḍala of Eight-petaled Lotus and Thirty-seven Deities*, 1750, Chosŏn, Woodblock Print, Ink on Paper, 32.5×21cm, attached to the verso of the *Hanging Banner (kwaebul)* of *Vairocana Buddha*, Yesan Taeryŏnsa Temple (Munhwajaech'ŏng and Sadŏnbŏbin Sŏngbo Munhwajae Yŏn'guwŏn, Taeryŏnsa Kwaebult'aeng, plate 2.)

후기까지 공통의 복장물로 활용되었다. 하나의 목판으로 여러 장을 인쇄할 수 있었던 인본 만다라는 불화에 부착되거나 불상 내부에 납입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장 의례에 사용되었다. 동일한 만다라가 불화와 불상 양쪽 영역의 복장에 공동으로 사용된 사실은, 고려 후기 불교 시각문화가 매체별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의례·도상 체계 속에서 조직되었음을 말해준다.

## V. 다른 문화권 불화에 나타나는 비교 사례들

지금까지 묘만지본 <미륵하생변상도>의 배접층에서 발견된 만다라를 통해 고려 후기 불화의 복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고려의 불화 복장이 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 불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다양한 방식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망해 보기 위해서,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일본 및 티베트 불화의 “봉안” 의례,<sup>51</sup> 인도 승려의 불화제작법에 대한 남송시대(1127~1279) 문헌기록 등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다. 이는 고려 불화 복장의 고유

성을 파악하게 해주는 동시에 타 지역과의 연관성을 짚어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근래 가마쿠라 시대(1185~1333)의 족자형 불화에 봉안된 납입품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여, 이 시기 일본에서도 불화에 그려진 존격을 예경을 위한 “생신”으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sup>52</sup> 그중 고려 불화의 복장법과 가장 유사한 방식은 불화를 그린 천과 배접지 사이에 범자가 묵서된 오륜탑(五輪塔) 모양 종이를 넣은 경우이다. 당시 법황(法皇)이었던 고우다 천황(後宇多天皇 1267~1324)이 1313년에 도지에 한납한 구카이의 초상화인 「홍법대사상 <담의본존>(弘法大師像 <談義本尊>)」이 그러한 예이다.<sup>53</sup> 일본의 오륜탑은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의 오대(五大)를 상징하는 다섯 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종의 입체 만다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오륜탑이 종종 불상 안에 납입되기도 한다. 따라서 범자가 서사된 밀교 사상에 기반한 오륜탑을 불화의 배면에 납입하여 불화에 신성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종자만다라를 불화 배면에 봉안했던 고려 후기 복장 방식과 개념적인 유사성이 보인다.<sup>54</sup>

가마쿠라 자수불화 중에는 축목(軸木)에 사리를 납입한 경우도 있다. 후쿠시마 아미다지(阿彌陀寺) 소장 <자수아미타명호(刺繡阿彌陀名号) 수불>은 축목에 사리가 안치되어 있었으며, 린노지(輪王寺) 소장 <자수종자아미타삼존>은 원통형 수정의 내부에 금니로 연화좌를 그린 감지(紺紙)를 붙이고 그 연화좌 위에 사리 한 알을 봉안하여 축목에 납입했다.<sup>55</sup> 고려 불화의 경우에는 불화 제작 당시의 목축이 보존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sup>56</sup> 그러나 754년 신라에서 만들어진 사경인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一)>에 보존된 축의 양 끝단 막이 안에 사리가 봉안된 사례가 있다.<sup>57</sup> 따라서 고려시대 불화의 목축에도 사리 등을 넣는 복장방식이 존재했었을 가

51 “복장”이라는 용어는 한국 불교전통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범아시아권에서 행해진 복장의례와 유사한 관습에 대한 통칭으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52 中野愼之, 『掛軸の納入品』, 中野愼之·岩崎奈緒·森道彦·横内裕人 編, 『日本の表装と修理』(東京: 勉誠出版, 2016), p. 33. “생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奥健夫, 앞의 논문, pp. 293-322; 長岡龍作, 앞의 책, 107-134 참조.

53 中野愼之, 위의 논문, p. 33.

54 본고 집필 과정에서 해당 오륜탑 지편을 실견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으나, 다른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 오륜탑형 종이의 범자는 아마도 오대를 상징하는 종자일 가능성이 높다.

55 中野愼之, 앞의 논문, p. 33. 나카노 노리유키(中野愼之)에 따르면 일본 불화의 납입품들은 사리와 오륜탑형 종이 등 불화를 생신화(生身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들과 인체의 모발, 소식경(消息經), 결연원문(結縁願文) 등 불화에 그려진 존격과 결연(結縁)을 맺고자 납입된 것들이 있었다.

56 박은경, 앞의 논문, p. 54.

57 양수정, 『고려 13~14세기의 繡佛에 관한 試論—崔滋(1188~1260)의 기록(1251)과 滿繡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미술학』 34 (2023), pp. 139-140.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인도에서 중국에 건너와 활약했던 승려들이 불화의 뒷면에 오장(五藏, 즉 五臟)을 그렸던 기록이 남아 있다. 북송 말에 태어나 남송 초에 활동했던 화론가 덩춘(鄧椿)이 집필한 『화계(畫繼)』에 따르면, 중인도 날란다사(那蘭陀寺) 출신 승려들이 불보살과 나한상을 많이 그렸는데, 그 상호가 중국인과 달랐으며 불화를 그리기 전에 먼저 그림의 배면에 오장을 그렸다고 한다.<sup>58</sup> 쓰카모토 마로미쓰(塚本鷹充)는 이처럼 불화 배면에 오장을 그리는 제작법은 화면에 그려진 존격에 생신불(生身佛)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하면서, 쇼보지의 고려 불화에서 발견된 만다라에 대해서도 내장에 준하는 무언가를 내부에 납입함으로써 불화에 물질적 초월한 힘을 부여하고자 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평한 바 있다.<sup>59</sup>

만약 인도 및 중국에서 불화의 뒷면에 오장을 그리던 전통이 고려에서는 만다라를 배접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것이라면, 이는 전반적인 한국 복장 방식의 성격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상의 경우 중국에서는 내장 모형을 내부에 봉안하는 관습이 송대부터 명청대까지 이어졌는데, 고려 및 조선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인체의 재현물을 복장의례에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오보병을 담은 후령통(喉鈴筒) 등과 같이 상징적인 물목이 복장물의 핵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sup>60</sup>

마지막으로 티베트 불교의 불화 배면에 계송(偈頌) 등을 기입했던 전통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존하는 티베트 불화 중 가장 오래된 것들은 약 11세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처럼 시대가 올라가는 작품 중에서도 이러한 봉안 흔적이 남아 있다. 미국 윌터스미술관에는 11-12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여성형 여래인 타라를 묘사한 티베트 불화가 한 점 소장되어 있는데, 뒷면에 여덟 줄의 문자가 붉은색으로 기입되어 있다(fig. 12-1, 12-2). 위의 네 줄은 산스크리트어로

58 西天中印度那蘭陀寺僧 多畫佛及菩薩 羅漢像 以西天布為之. 其佛相好與中國人異 眼目稍大 口耳俱怪 以帶挂右肩 裸袒坐立而已. 先施五藏於畫背 乃塗五彩于畫面 以金或朱紅作地. 해당 원문에 대한 정보를 저자에게 처음 알려주신 교토대학교 이나모토 야스오(稲本泰生) 교수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稲本泰生, 「ボードガヤー出土の10-11世紀漢文石刻資料と訪天僧の奉獻品」, 『東方學報』 94 (2019), pp. 509-511[104-106] 참조.

59 塚本鷹充, 「皇帝の身体と聖心イメージ: 仏教と中国の身体観の変容」, 蜷川順子 編, 『ハートの形のイメージ世界見えるものと見えないもの』(京都: 晃洋書房, 2021), pp. 92-93.

60 인체의 장기모형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분절된 신체를 복장물로 사용하는 것을 유난히 기괴한 한국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연미, 「불복장 의복 봉안의 의미: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지고리와 전설을 중심으로」, 『美術史學』 34 (2017), pp. 165-196 참조. 고려부터 조선까지 한국 복장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이선용, 앞의 논문, pp. 50-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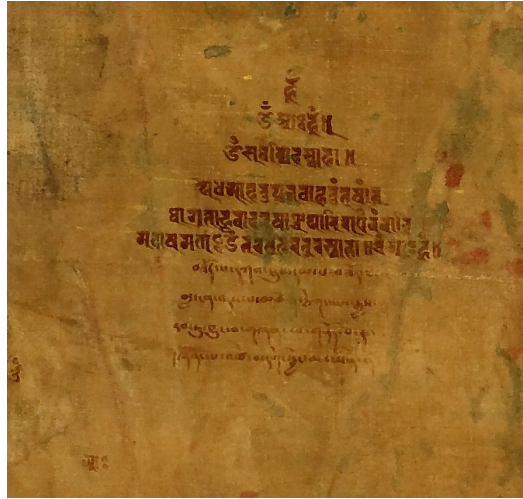


Fig. 12. <타라>와 그 배면 봉헌 명문 *Tārā (recto) and Consecration Inscriptions (verso)*, Central Tibet, c. Mid to late 11th century, Pigment on Cotton, 122×80cm, The Walters Art Museum, Berthe Ford Collection (The Walters Art Museum, <https://art.thewalters.org/object/F.112/>)

적은 <연기법송(緣起法頌)>이고, 아래 네 줄은 티베트본 율장(律藏)의 인내심에 대한 계송이 티베트문자로 적혀 있다. 이 붉은 묵서로 이루어진 계송들은 스투파, 즉 불탑의 형상을 이루도록 배열되었다. 앤드류 쿼트만(Andrewrotlatk Quintman)은 이러한 불화 뒷면의 계송들이 일종의 법사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불화에 신성성을 부여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61</sup>

<연기법송>은 굽타시대부터 시작하여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불교 문화권에서 법사리로써 탑 등에 널리 봉안되었던 계송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역할에 적합했을 것이다.<sup>62</sup> 또한 티베트 불화 뒷면에 진언(mantra)과 다라니를 적은 예들도 전해지고 있다. 예를

61 Andrew Quintman, "Life Writing as Literary Relic: Image, Inscription and Consecration in Tibetan Biography," *Material Religion* 9, no. 4 (2013), pp. 482-484.

62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연기법송>에 대해서는 문상련, 「印度 法寶信仰의 변천 小考」, 『정토학연구』 20 (2013), pp. 165-192; 강희정,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송(緣起法頌)과 해상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2014), pp. 38-61.

들어, 드리궁 카규 분파의 조사였던 지그텐 슴곤(Jigten Sumgön, 1143-1217)의 13세기 진영의 배면에는 <연기법승>과 함께 다양한 진언, 다라니 및 율장의 계송을 적은 37줄의 명문이 적혀 있다.<sup>63</sup>

이와 같은 티베트 불화의 전통은 진언·다라니를 이용해 불화에 상징적인 법사리를 봉안했다는 점에서 고려 불화의 복장과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진언·다라니를 배접지 내부에 봉안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의 뒷면에 직접 서사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고려 불화는 대부분 후대에 상황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티베트와 유사한 복장 방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대인 조선시대에는 불화의 뒷면에 진언과 다라니를 직접 서사하거나 인출하여 부착하는 복장 방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sup>64</sup> 한국과 티베트 불화 복장 전통 간에 모종의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I. 맺음말

본고는 일본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 배접지 최내층에서 확인된 세 점의 목판본 <삼십칠존만다라> 을 토대로 고려시대 불화 복장을 조명해 보았다. 묘만지본 <삼십칠존만다라> 는 금강계 성신회의 37존을 종자로 표현하고 외곽에 다라니와 진언들을 원권으로 결합했으며, 해당 만다라에 포함된 <보협인다라니>는 법사리로 기능하여 불화에 상징적인 사리를 봉안하는 역할을 했으며, <삼신진언>은 불화에 삼신을 현존하게 하고, 만다라 중앙의 법신 비로자나불의 종자는 불화에 그려진 존격을 법신에서 현현한 생신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러한 위신력을 가진 만다라는 매우 효과적인 복장물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금강계만다라 전통과의 비교를 통해, 묘만지본 만다라가 중국 당나라의 37존으로 이루어진 금강계 종자만다라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종자 배치와 구획, 다라니와의 결합 양상에서 고려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했다. 이는 고려 후기 불교 시각문화가

63 Andrew Quintman, 앞의 논문, p. 483.

64 이용윤, 「조선 후기 佛畵의 腹藏 연구」, 『美術史學研究』 289 (2016), pp. 132-138.

매체와 지역을 가로지르는 교섭 속에서 제작되었으면서도 고려의 복장의례 등을 위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불화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종종 상황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작 당시의 복장 흔적은 대부분 소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쇼보지 소장 불화에 이어 새로이 발견된 묘만지 불화의 만다라는 이러한 불화 복장법이 고려후기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동일한 만다라가 동시기 불상 복장에서도 상당수 확인된다는 점은, 불화와 불상 복장이 분리된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적·의례적 맥락 속에서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려시대를 전후하여 인도, 중국, 일본, 티베트에서는 불화 배면에 오륜답형 종이를 부착하거나 법사리로 기능하는 개송과 진언을 서사하는 등 고려 불화의 복장 방식과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관습들이 존재했음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의 <삼십칠존만다라>는 회화를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가 머무는 주처(住處)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적·의례적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묘만지본 만다라에 대한 고찰은 향후 고려 불화 복장을 둘러싼 연구 방법과 자료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keywords)\_묘만지(妙滿寺, Myōman-ji), 미륵하생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 *Descent of Maitreya Painting*), 삼십칠존만다라(三十七尊曼荼羅, *Maṇḍala of Thirty-seven Deities*),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Vajradhātu Maṇḍala*), 보협인다라니(寶篋印陀羅尼, *Mantra of the Precious Casket Seal of the Complete-Body Relics of All Tathāgatas*), 불화(佛畫, Buddhist Painting), 복장(腹藏, *pokchang*)

■ 투고일 2026년 1월 19일 | 심사개시일 2026년 1월 26일 |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9일 ■

## 참고문헌

### 1. 사료

- 『廣大寶樓閣善住祕密陀羅尼經』  
『入唐新求聖教目錄』  
『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日本國承和五年入唐求法目錄』  
『画継』

### 2. 한국어 문헌

- 강인선, 「일본 妙滿寺(묘만지) 소장 1294년명 <彌勒下生變相圖> 연구」, 『불교미술사학』 19, 2015.
- 강희경,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승(緣起法頌)과 해상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2014.
- \_\_\_\_\_, 「17세기 이후 불상의 복장(腹藏) 의례: 법계(法界)의 구현」, 『미술사와 시각문화』 18, 2016.
- 國立中央博物館 編,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佛教彫刻 調查報告 II』, 國立中央博物館, 2016.
- 길상, 『佛敎大辭典』, 흥법원, 2001.
- 김연미, 「불복장 의복 봉안의 의미: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저고리와 전설을 중심으로」, 『美術史學』 34, 2017.
- 김정희, 「高麗佛畫의 發願者와 施主者」, 『강좌미술사』 38, 2008.
- 김추연, 「1351년명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 연구」, 『미술사연구』 48, 2025.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복장유물 가치 조명 학술대회』, 2023.
- 賴依縵, 조아담, 「경전들과 존상들—9세기 중국 법문사에서 발굴된 금강계 만다라」, 『회당학보』 17, 2012.
- 류상수, 「고려 후기 변상도에 보이는 불교행례와 시각적 표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문상련, 「印度 法寶信仰의 변천 小考」, 『정토학연구』 20, 2013.
- \_\_\_\_\_,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원문(願文)과 다라니」, 『불교문화재연구』 5, 2024a.
- \_\_\_\_\_,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복장 다라니—복장 다라니에 보이는 고려시대 만다라와 諸種 진언」, 『동악미술사학』 36, 2024b.
- \_\_\_\_\_,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복장 다라니 연구—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복장 유물>과 관련하여」, 『불교미술사학』 39, 2025.
- (사) 정보문화재연구원,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9: 대련사 괘불탱』, 문화재청, 2016.
- 박은경, 「高麗佛畫의 변죽」, 『美術史論壇』 34, 2012.
- 박은선, 「法門寺 石室 출토 捧眞身菩薩像 연구—晩唐期 만다라의 중국적 전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서산시·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5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국보 승격 추진 학술대회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과정과 중수, 그 역사적 의미』, 2025.

- 손희진, 「고려시대 불복장 팔엽삼십칠존만다라(八葉三十七尊曼陀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신은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 복장 발원문의 내용과 특징」, 『미술사연구』 48, 2025.
- 양수정, 「고려 13~14세기의 繡佛에 관한 試論—崔滋(1188~1260)의 기록(1251)과 滿繡를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34, 2023.
- 엄기표, 「고분 출토 범자 진언 다라니의 현황과 의의」, 『순창 윤림리 농소고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6.
- 온양민속박물관 편, 『1302年 阿彌陀佛服藏物の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 이경주, 「고려후기 전통양식 여래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선용, 「韓國 佛教腹藏의 構成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승혜, 「농소고분(農所古墳) 다라니관(陀羅尼棺)과 고려시대 파괴옥(破地獄) 신앙」, 『한국학』 42, 2019.
- \_\_\_\_\_, 「불교 조상사적(造像史的) 맥락에서 본 복장(腹藏)」, 『남도문화연구』 38, 2019.
- \_\_\_\_\_, 「10~11세기 중국(中國)과 한국(韓國)의 불탑(佛塔) 내 봉안 『보협인경(寶篋印經)』 재고」, 『梨花史學研究』 62, 2021.
- 이운용, 「조선후기 佛畵의 腹藏 연구」, 『美術史學研究』 289, 2016.
- 임영애, 「고려 후기 염승익(廉承益)의 <보협인다라니·만다라> 제작과 주술 치유」, 『의사학』 33, 2024.
- \_\_\_\_\_, 「1295년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보협진언·팔엽삼십칠존만다라> 2종」,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복장유물 연구결과보고회 학술자료집』, 2025.
- 정은우, 「다라니 분석과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시기」,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국보 승격 추진 학술대회자료집』, 2025.
- 정은우, 신은제,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2017.
- 주경미, 「8~11세기 동아시아 탑내 다라니 봉안의 변천」,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2011.
- 최성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한국사학보』 30, 2008.
- 최연식, 「한암(閑庵) 보환(普幻)의 행적과 서산 개심사 아미타여래좌상의 수보 배경」, 『동국사학』 80, 2024.

### 3. 동양어 문헌

- 稲本泰生, 「ボードガヤ一出土の10~11世紀漢文石刻資料と訪天僧の奉獻品」, 『東方学報』 94, 2019.
- \_\_\_\_\_, 「北宋大中祥符年間における舎利莊嚴の位相 - 長干寺阿育王塔の埋納を中心に」, 外村中·稲本泰生 編, 『「見える」ものや「見えない」ものをあらわす: 東アジアの思想·文物·藝術』, 東京: 勉誠社, 2024.
- 東京國立博物館 編, 『日本美術全集』 卷 1, 東京: 東都文化, 1955.
- 謝繼勝, 「涉及吐蕃美術的唐宋画论」, 『文艺研究』, 2006, 6.
- 森橋なつみ, 「重要文化財「弥勒下生変相図」(京都·妙満寺藏)の修理と版本曼荼羅の発見」, 京都国立博物館 編, 『宋元仏画一蒼海を越えたほとけたち』, 東京: 毎日新聞社, 京都: 京都新聞, 2025.
- 奥健夫, 「生身仏像論」, 長岡龍作 編, 『造形の場(講座 日本美術史 第4巻)』,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5.
- 汪悦进, 「何谓『真身』—法門寺舍利及其唐代情境下的『肉身』转换」, 『美术大观』, 2023, 3.

- 長岡龍作, 『仏教と造形—信仰から考える美術史』,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21.
- 中野慎之, 「掛軸の納入品」, 中野慎之・岩崎奈緒・森道彦・横内裕人 編, 『日本の表装と修理』, 東京: 勉誠出版, 2020.
- 陈捷, 张昕, 「宣化辽墓与阎院寺: 密教仪轨影向下的符号体系和神圣空间」, 『美术研究』6, 2018.
- 塚本鷹充, 「皇帝の身体と聖心イメージ: 仏教と中国の身体観の変容」, 蛭川順子 編, 『ハートの形のイメージ—世界見えるものと見えないもの』, 京都: 晃洋書房, 2021.
- 坂田黒珠堂, 『保存修理報告書 正法寺藏 重要文化財指定 絹本着色 如来像 一幅』, 滋賀: 坂田黒珠堂, 1999.
- 韩国祥, 「朝阳西上台辽墓」, 『文物』第7期, 2000.
- 韩伟, 「法门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会造像宝函考释」, 『文物』第8期, 1992.
- 韩恩平, 『皇帝佛国—法门寺』, 西安: 陕西旅游出版社, 2016.

#### 4. 서양어 문헌

- Copp, Paul. *The Body Incantatory: Spells and the Ritual Imagination in Medieval Chinese Buddh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 Guang, Xing. *The Concept of the Buddha: Its Evolution from Early Buddhism to the Trikāya Theory*. London: RoutledgeCurzon, 2005.
- Lee, Seunghye. "Text, Materiality, and Enshrinement Practices: Visual Culture of a Buddhist Dhāraṇī in Late Medieval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27, no. 2 (2022): 137-168.
- Kim, Youn-mi. "From Esoteric to Pure Land and Huayan Buddhism: Uṣṇīṣavijayā Dhāraṇī Mandala in Liao Buddhism." *Misulssahagyōn'gu* 307 (2020): 170-180.
- Nagao, Gadjin. "On the Theory of Buddha-Body (Buddha-kāya)." trans. Hirano Umeyo. *The Eastern Buddhist* 6, no. 1 (1973): 25-53.
- Quintman, Andrew. "Life Writing as Literary Relic: Image, Inscription and Consecration in Tibetan Biography." *Material Religion* 9, no. 4 (2013): 482-484.

## References

### 1. Primary Sources

- Deng Chun, *Hua ji*  
*Guangdabaolouge shanzhu bimi tuoluonijing* T.19, no. 1006.  
*Ribenguo chenghe wunian rutang qiufa mulu* T.55, no. 2165.  
*Rutang xinqiu shengjiao mulu* T. 55, no. 2166.  
*Rutang xinqiu shengjiao mulu* T. 55, no. 2167.

##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Chöng, Ŭnu (Jeong Eunwoo) and Sin, Ŭnje (Shin Eunjae). *Koryö ũi söngmul, pulbokchang*. P'aju: Kyöngin munhwasa, 2017.
- Chu, Kyöngmi (Joo Kyoungmi). "8~11-segi Tong Asia t'am nae tarani pongan ũi pyönc'h'ön." *Misulsa wa sigak munhwa* 10 (2011): 264-293.
- Im, Yöngae (Lim Yongae). "1295-nyöñ Kumi Taedunsa könc'h'il Amit'a yörae jwasang ũi *Pohyöp chinöñ·P'alyöp samsip ch'iljon mandara 2-chong*." In *Kumi Taedunsa könc'h'il Amit'a yörae jwasang pokchang yumul yöñ'gu gyölgwa pogohoe haksul jaryojip* (2025): 70-100.
- \_\_\_\_\_. "Koryö hugi Yöm süngik ũi Pohyöbin tarani·mandara chejak kwa chusul ch'iyu." *Ŭisakah* 33 (2024): 563-597.
- Kang, Hüijöng (Kang Heejung). "17-segi ihu pulssang ũi pokchang üirye : Pöpkye ũi kuhyöñ." *Misulsa wa sigak munhwa* 18 (2016): 40-67.
- \_\_\_\_\_. "Powönsaji och'üñg sökt'ap sariham ũi Yöñ'gi pöpsong kwa haesang Silk'ü rodü." *Misulsa wa sigak munhwa* 13 (2014): 38-61.
- Kang, Insöñ (Kang Inseon). "Ilbon Myoman-ji sojang 1294-nyöñ myöñg Mirük hasaeng kyöñg pyöñsangdo yöñ'gu." *Pulgyo misul sahak* 19 (2015): 101-141.
- Kilssang. *Pulgyo tae sajön*. Söul: Hongböpwöñ, 2001.
- Kim, Ch'uyöñ (Kim Chuyeun). "1351-nyöñ myöñg Hapch'ön Haeinsa kümdong Gwanüm·Chijang bosal jwasang yöñ'gu." *Misulsa yöñ'gu* 48 (2025): 109-143.
- Kim, Chöñghüi (Kim Junghee). "Koryö Puhwa ũi parwöñja wa sijuja." *Kangjwa misulsa* 38 (2012): 251-283.
- Kim, Yöñmi (Kim Youn-mi). "Pulbokchang üibok pongang ũi üimi: Sangwöñsa Munsudongjasang ũi chögori wa chöñsöl ül chungsim üro." *Misulssakah* 34 (2017): 165-196.
-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ed.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sojang Pulgyo chogak chosa pogo II*. Söul: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2016.
- Lai, Yiman and Cho, Adam. "Kyöñgjön tül kwa chonsang tül: 9-segi Chungguk Pömmunsa esö palgul toen kümganggye mandara." *Hoedang hakpo* 17 (2012): 262-284.
- Mun, Sangnyöñ (Moon Sang-Leun). "Mun'gyöñg Taesüñgsa kümdong Amit'a yörae jwasang pokchang tarani yöñ'gu: Onyang Minsok Pangmulgwan sojang Koryö sidae pokchang yumul kwa kwallyöñhayö." *Pulgyo misul sahak* 39 (2025): 117-153.
- \_\_\_\_\_. "Sösan Kaesimsa mokcho Amit'a yörae jwasang pokchang wöñmun kwa tarani." *Pulgyo munhwajae yöñ'gu* 5 (2024): 5-46.
- \_\_\_\_\_. "Ponghwa Ch'öngnyangsa könc'h'il Yaksayörae jwasang pokchang tarani: Pokchang tarani e

- poinŭn Koryŏ sidae mandara wa chesujinŏn.” *Tongak misul sahak* 36 (2024): 174-194.
- \_\_\_\_\_. “Indo Pŏpposinangŭi pyŏnch’ŏn Sogo.” *Chŏngt’ohak yŏn’gu* 20 (2013): 165-192.
- Sŏngbo Munhwajae Yŏn’guwŏn. *Taehyŏng purhwa chŏngmil josa pogosŏ 9: Taeryŏnsa kwaebult’aeng*. Sŏul: Munhwajaech’ŏng (Korea Heritage Service), 2016.
- Onyang Minsok Pangmulgwan (Onyang Folk Museum ed. *1302-nyŏn Amit’a pulpokchangmul ŭi chosa yŏn’gu*. Onyang: Onyang Minsok Pangmulgwan (Onyang Folk Museum), 1991.
- Ŏm, Kip’yo (Eom Gipyo). “Kobun ch’ulto pŏmja chinŏn tarani ŭi hyŏnhwang kwa ŭiŭi.” In Sunč’ang Unnim-ni Nongsogobun edited by Kungnip Naju Munhwajae Yŏn’gu-so. 154-156. Naju: Kungnip Naju Munhwajae Yŏn’gu-so, 2016.
- Pak, Ŭn’gyŏng (Park Eunkyung). “Koryŏ purhwa ŭi pyŏnjuk.” *Misulsa nondan* 34 (2012): 35-65.
- Pak, Ŭnsŏn (Park Eunsun). “Pŏmmunsa sŏksil ch’ult’o pongjinsin posalssang yŏn’gu: mandanggi mandara ŭi Chunggukchŏk chŏn’ga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9.
- Ryu, Sangsu (Yoo Sangsoo). “Koryŏ hugi Pyŏnsangdo e poi nŭn Pulgyo haengnye wa sigakchŏk p’yosang yŏn’gu.” Ph.D. diss., Dong-A University, 2023.
- Sin, Ŭnje (Shin Eunjae). “Haeinsa kŭmdong Gwanŭm·Chijang bosal jwasang pokchang palwŏnmun ŭi naeyong kwa t’ŭkching.” *Misulsa yŏn’gu* 48 (2025): 145-180.
- Sŏsan-si, Taehan Pulgyo Jogyejong Kaesimsa, Han’guk chŏnt’ong Munhwa Daehakky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2025 Sŏsan Kaesimsa mokcho Amit’a yŏrae jwasang kukpo sŭnggyŏk ch’ujin haksul daehoe: Sŏsan Kaesimsa mokcho Amit’a yŏrae jwasang ŭi chosŏng kwa chungsu, kŭ yŏksajŏk ŭimi*. Sŏsan: Sŏsan-si, Taehan Pulgyo Jogyejong Kaesimsa and Puyŏ: Han’guk chŏnt’ong Munhwa Daehakky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2025.
- Son, Hŭijin (Son Heejin). “Koryŏ sidae pulpokchang P’alyŏp samsip ch’iljon mandara yŏn’gu.”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21.
- Taehan Pulgyo Jogyejong Kaesimsa. *Sŏsan Kaesimsa mokcho Amit’a yŏrae jwasang kwa pokchang yumul kach’i chomyŏng haksul daehoe*. Seosan: Taehan Pulgyo Jogyejong Kaesimsa, 2023.
- Yang, Sujŏng (Yang Sujeong). “Koryŏ 13~14-segi ŭi subul e kwanhan siron: Ch’oeja ŭi kirok kwa mansu rŭl chungsim ŭro.” *Tongak misul sahak* 34 (2023): 127-173.
- Yi, Kyŏngju (Lee Kyongju). “Koryŏ hugi chŏnt’ong yangsik yŏraesang yŏn’gu.”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16.
- Yi, Sŏnyong (Lee Seonyong). “Han’guk Pulgyo Pokchang ŭi Kusŏng kwa T’ŭksŏng Yŏn’gu.” PhD diss., Tongguk University, 2018.
- Yi, Sŭnghye (Lee Seunghye). “10~11-segi Chungguk kwa Han’guk ŭi Pult’ap nae pongan Pohyŏbin’gyŏng chaego.” *Ihwa sahak yŏn’gu* 62 (2021): 1-42.
- \_\_\_\_\_. “Nongso kobun taranikwan kwa Koryŏ sidae p’ajiok sinang.” *Han’guk hak* 42 (2019): 341-381.
- \_\_\_\_\_. “Pulgyo chosangsa chŏk maengnak esŏ pon pokchang” *Namdo munhwa yŏn’gu* 38 (2019): 7-47.
- Yi, Yongyun (Lee Yong-yun). “Chosŏn hugi pulhwa ŭi pokchang yŏn’gu.” *Misulssahag yŏn’gu* 289

(2016): 132-138.

###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 Chen, Jie and Zhang, Xin. "Xuanhua Liaomu yu Geyuansi: Mijiao yigui yingxiang xia de fuhao tixi he shensheng kongjian," *Meishu yanjiu* 6 (2018): 25-41.
- Han, Enping. *Huangdi foguo: Famensi*. Xi'an: Shanxi lüyou chubanshe, 2016.
- Han, Guoxiang. "Chaoyang xishangtai Liaomu," *Wenwu* 7 (2000): 50-64.
- Han, Wei. "Famensi Tangdai Jingangjie Damantuluo Chengshenhui zaoxiang baochan kaoshi," *Wenwu* 8 (1992): 41-54.
- Inamoto, Yasuo. "Bōdogayā shutsudo no 10-11 seiki kanbun sekkoku shiryō to hōtensō no hōken hin," *Tōhō gakuhō* 94, 2019.
- \_\_\_\_\_. "Hokusō daichū shōfu nenkan ni okeru shari sōgon no isō: Chōgan-ji Aikuō-tō no mainō o chūshin ni," In *Mieru mono ya mienai mono o arawasu Higashijia no shisō bunbutsu geijutsu*, edited by Inamoto Yasuo and Sotomura Ataru, 537-594. Tōkyō: Benseisha, 2024.
- Morihashi, Natsumi. "Jūyō Bunkazai 'Miroku Geshō Hensōzu' (Kyōto, Myōman-ji zō) no shūri to hanpon mandara no hakken," In *Sō Gen butsuga: Umi o koeta hotoketachi*, edited by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Kyoto National Museum), 154-157. Kyōto: Kyōto Kokuritsu Hakubutsukan (Kyoto National Museum), 2025.
- Nagaoka, Ryūsaku. *Bukkyō to zōkei: Shinkō kara kangaeru bijutsushi*. Tōkyō: Chūō kōron bijutsu Shuppan, 2021.
- Nakano, Noriyuki. "Kakejiku no nōnyū hin," In *Nihon no hyōsō to shūri*, edited by Iwasaki Naoko, Mori Michihiko, Nakano Noriyuki and Yokouchi Hiroto, 33. Tōkyō: Bensei Shuppan, 2020.
- Oku, Takeo. "Shōjin butsuzōron," In *Zōkei no ba* (Kōza Nihon bijutsushi vol. 4), edited by Nagaoka Ryūsaku, 293-322. Tōkyō: Tōkyō daigaku shuppankai, 2005.
- Sakata, Bokushudō. Hozon shūri hōkokusho: *Shōbōji zō jūyō bunkazai shitei kenpon chakushoku Nyorai zō ippuku*. Shiga: Sakata Bokushudō, 1999.
- Tōkyō Kokuritsu Hakubutsukan. *Nihon bijutsu zenshū*, vol. 1. Tōkyō: Toto bunka, 1955.
- Tsukamoto, Maromitsu. "Kōtei noshintai to seishin imeiji: Bukkyō to Chūgoku noshintaikan no hen'yō," In *Hāto no katachi no imeiji sekai: mieru mono to mie nai mono*, edited by Ninagawa Junko, 82-99. Kyoto: Koyo shobo, 2021.
- Wang, Yuejin (Wang Eugene). "Heweizhenshen: Famensi sheli ji qi Tangdai Qingjing xia de Roushen zhuanhuan," *Meishu Daguan* (March 2023): 10-24.
- Xie, Jisheng. "Sheji Tubo meishu de Tang Song hualun," *Wenyi yanjiu* (June 2006): 122-130.

#### 4. Secondary Sources in English

- Copp, Paul, *The Body Incantatory: Spells and the Ritual Imagination in Medieval Chinese Buddh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 Guang, Xing, *The Concept of the Buddha: Its Evolution from Early Buddhism to the Trikāya Theory*, London: RoutledgeCurzon, 2005.
- Kim, Youn-mi, "From Esoteric to Pure Land and Huayan Buddhism: Uṣṇīṣavijayā Dhāraṇī Mandala in Liao Buddhism," *Misulssahagyōn'gu* 307 (2020): 170-180.
- Lee, Seunghye, "Text, Materiality, and Enshrinement Practices: Visual Culture of a Buddhist Dhāraṇī in Late Medieval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27, no. 2 (2022): 137-168.
- Nagao, Gadjin, "On the Theory of Buddha-Body (Buddha-kāya)," trans. Hirano Umeyo, *The Eastern Buddhist* 6, no. 1 (1973): 25-53.
- Quintman, Andrew, "Life Writing as Literary Relic: Image, Inscription and Consecration in Tibetan Biography," *Material Religion* 9, no. 4 (2013): 482-484.

## 국문초록

최근 일본 교토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의 배집지 층위에서 목판본 <삼십칠존만다라(三十七尊曼荼羅)> 세 점이 수리·보존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 만다라들은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고려 후기 불화 복장 방식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고는 새로 발견된 <삼십칠존만다라>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이 만다라가 불화에 생명력과 신성성을 부여하는 복장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구조적·의례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묘만지본 만다라는 금강계만다라 성신회(成身會)의 37존 종자(種子)를 중심에 배치하고 다라니·진언과 결합한 복합적 형식을 취한다. 본고는 이를 중국·일본의 금강계만다라 사례와 비교하여, 고려 복장에 사용된 만다라가 동아시아적 공통성을 공유하면서도 고려적 변용을 통해 독자적 형식을 형성했음을 밝혔다. 특히 <삼십칠존만다라>가 불화에 상징적으로 '법사리'를 봉안하고, 화면의 불보살을 법신(法身)의 현현으로 전환하는 장치였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삼십칠존만다라>가 동시기 불상 복장에도 봉안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화와 불상이 분리된 매체가 아니라 연속된 의례 체계 속에서 운용되었음을 밝혔다. 끝으로 티베트·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불화 봉안 방식과 비교하여 고려 불화 복장의 특수성과 초지역적 연결성을 조명하였다.

## Abstract

# The *Thirty-Seven Deity Mandala* Discovered in the *Maitreya's Descent* Painting at Myōman-ji Temple, Japan

Kim Youn-mi\*

Son Hee-jin\*\*

Three woodblock prints of the *Thirty-Seven Deity Mandala* were recently discovered during the repair and conservation of the backing layers of the *Maitreya's Descent* painting (1294) in the collection of Myōman-ji Temple in Kyoto, Japan. These mandalas serve as crucial primary sources for understanding the *pokchang* practice of late Koryō Buddhist paintings, a field that has remained understudied. This paper analyzes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newly discovered *Thirty-Seven Deity Mandalas* and examines the ritual context in which they functioned as sacred inserts that animated the painting and endowed it with sacred presence.

The Myōman-ji mandalas feature the seed syllables (*Chongja*) of the thirty-seven deities from the Perfected Body Assembly (*Chojinhūi*) of the *Diamond Realm Mandala* at their center, integrated with various *dhāraṇī* and *mantras*. By comparing these with *Diamond Realm Mandala* examples from China and Japa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while the mandalas used in Koryō *pokchang* practice shared East Asian commonalities, they formed a unique style through localized Koryō adapta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irty-Seven Deity Mandala* acted as a symbolic device to enshrine “Dharma-relics” (*pōpsari*) within the painting, thereby transforming the depicted Buddhas and Bodhisattvas into manifestations of the *dharmakāya* (Truth Body).

Furthermore, by noting that the *Thirty-Seven Deity Mandala* was simultaneously enshrined in contemporaneous Buddhist statues, this study reveals that Koryō Buddhist paintings and statues were not treated as separate media but were operated within a continuous ritual system. Finally,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specificities and transregional connectivity of Koryō Buddhist *pokchang* practices by comparing them with the consecration methods of Buddhist paintings in Tibet and Japan.

---

\* Professor, Department of Art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rt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